

James W. Knox's Sermon on Calvinism



칼빈주의는 성경적인가?

James W. Knox 지음
이우진 옮김

 진리의 성경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s

James W. Knox' s Sermon on Calvinism

by James W. Knox

칼빈주의 비평

칼빈주의는 성경적인가?

초판인쇄 / 2010년 6월 12일

초판발행 / 2010년 6월 12일

지 은 이 / James W. Knox

옮긴이 / 이우진

펴낸곳 /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판 권 /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2010

가 격 /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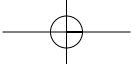
이 메 일 / kjv74@naver.com

표지디자인 · 편집 | 박소현 dew0706@hanmail.net

■ ISBN 978-89-959341-7-3



2 칼빈주의는 성경적인가?



글 읽는 순서

역자 서문 4
 서문 7
 제1장 전적타락 11
 제2장 무조건적인 선택 27
 제3장 제한된 속죄 51
 제4장 저항할 수 없는 은혜 73
 제5장 성도의 견인 91

But I will shew thee that
 which is noted in the scripture of tr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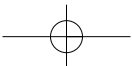
(Daniel 10:21a)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다니엘서 10:21a)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역자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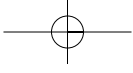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르게 장로교회가 기독교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절반 가까이가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그들 중 대다수가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교리는 칼빈주의이며 그 핵심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교리로 성경과는 동떨어진 이교 철학을 근본으로 해서 제롬이 만들었습니다. 칼빈주의는 이러한 예정론을 기초로 세운 교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임스 W. 닉스 형제의 칼빈주의 강의를 번역 및 정리한 것으로, 칼빈주의와 예정론이 무엇이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주 쉽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근간이 된 강의들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강의들은 기도회 성경공부 시간에 진행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칼빈주의 강의를 기도회 시간에 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다보니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닉스 형제는 이 강의에서 칼빈주의를 성경적으





로 비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중심은 칼빈주의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미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 독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유익을 얻고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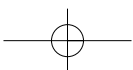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해서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 독자들은 장로교회에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고, 장로교회에 다니는 독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성경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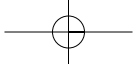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칼빈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로교회에 다니는 지체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지식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식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고 세워 줍니다. 모든 신비와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고전 13:2).

이 책의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 안에서 안식하게 하려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장로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혹은 칼빈주의의 오류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물론 거짓 교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거짓 교리에는 언제나 단호해야 합니다(고전 13:6). 그러나 거짓 교리에 빠진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사랑이어야 합니다(엡 4:15).

제임스 닉스 형제의 칼빈주의 강의에는 이 책의 제5장에 해당하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은 음성 파일을 듣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느낌이 그대로 날 수 있도록 구어체로 정리했습니다. 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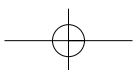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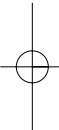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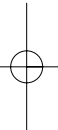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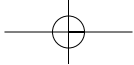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을 수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곳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와 역자와 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0년 1월

이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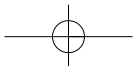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서문

먼저 로마서 10:9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오늘부터 칼빈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존 칼빈은 극단적인 운명론을 공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역시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제롬으로부터 극단적인 운명론을 배웠습니다. 제롬은 420년경에 살던 구원받지 못한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제롬은 모든 사람들은 창세 전에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나 지옥에 갈 것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롬에 의하면 구원받을지 지옥에 갈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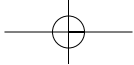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으므로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롬에 의하면 하늘나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늘나라에 갈 것이며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예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일반적으로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제롬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칼빈이 만든 체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제롬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 사상을 널리 전한 것뿐입니다. 칼빈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로마의 교황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칼빈이 한 말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교리를 확실히 하다 보면,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와 누가 정죄를 받을지 결정해 놓으셨음을 알 수 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마저도 영원한 계획에 의한 것이다.”

칼빈이 한 말을 풀이하자면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모든 강간과 살인과 아동학대와 범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저는 그런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칼빈의 교리는 5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톨립(TULIP)”이라고 부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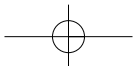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된 속죄(Limited Atonement)”, “저항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 그리고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간략히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좀 관찮은 듯 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속죄”는 예수님께서 오직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여러분이 이것을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면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결국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칼빈주의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어떤 칼빈주의자도 자신들의 교리를 이렇게 간략히 정리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는 교리를 간략히 정리하면 자기들의 믿음의 정체가 금방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 요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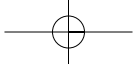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거창한 용어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들킬 것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거창한 용어로 치장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개혁자들의 신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제롬의 “로마카톨릭 결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훌륭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러한 용어가 결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주권적인 하나님”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게 하도록 고안된 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30~40년 동안 미국에서 많은 침례교회들이 칼빈주의를 받아들인 이유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을 때, 자신들이 각성하여 기도와 복음증거를 열심히 하기보다, 모든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선택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칼빈주의가 사실이라면 거리에 나가서 힘들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칼빈주의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의 손길을 멈추게 하는 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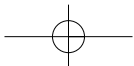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제1장 전적 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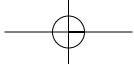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Total Depravity • Unconditional Election • Limited Atonement • Irresistible Grace • Perseverance of the Saints

먼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에드윈 팔머¹⁾의 글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윈 팔머는 칼빈주의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를 집필한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입니다.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팔머의 책으로 신학 대학에서 칼빈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드윈 팔머는 새국제역본(NIV)의 번역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정론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선생이 잘못된 역본의 번역자인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정론을 믿는다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든 간에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팔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다. 단지 병들고 부상당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병들고 부상당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죽어 있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채,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망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영적으로 살리시기 전까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전

1) Palmer, Edwin H.,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Baker Pub Group,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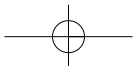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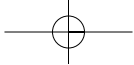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혀 없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처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잘 들어보세요. 칼빈주의자의 정신 세계에 따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음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장을 들으면 참 이상한 주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칼빈주의자이거나 칼빈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존 칼빈은 제롬의 교리를 공부한 로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언약이란 한 사람의 개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제가 주는 유아 세례에 의해 아기가 선택받은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아기는 선택받은 아기가 됩니다. 특이한 점은 어떠한 칼빈주의자도 자신들의 아기가 창세 전부터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은 으레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생후 8 일째 아기의 할례를 유아 세례에 접목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주장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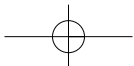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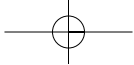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혹시 이렇게 기록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성경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입니다.

성경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칼빈이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까, 장로교인입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까, 개혁주의자입니까?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교와 전도지와 복음전파를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지만 매우 적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도대체 왜 선교와 복음 전파에 돈을 들이는 것입니까?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칼빈주의를 믿는 목사에게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수로 칼빈주의자의 아이를 자동차로 치면 그 칼빈주의자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찬양을 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고소할까요? 십중팔구 고소할 겁니다. 어떠한 칼빈주의자도 “하나님, 이 사람이 저의 아이를 차로 친 것도 모두 주님의 영원한 계획과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오직 자신들의 구원에만 적





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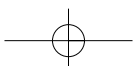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부터 보시면서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입니까, 말씀을 들음입니까? 순서 상으로도 말씀을 들음이 먼저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다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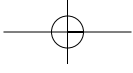
이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보내어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선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먼저 보내어지고 나서 선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4절의 끝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14절의 앞부분을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전파하는 것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듣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1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문맥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칼빈주의자들도 헬라어를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적인 논쟁에서 밀리면 항상 헬라어를 들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을 혼란시키기 위함일 뿐입니다. 헬라어가 무엇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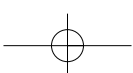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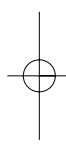
라고 되어 있는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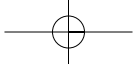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어떤 칼빈주의자는 로마서 10장의 문맥이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가야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18절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을 실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 듣던 라디오 설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8시부터 8시 반까지 설교하던 그 설교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1964년에 구원받은 이래로 단 한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이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었지만 그게 죄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실수도 분명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설교자 다음 설교자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방송국에서 그 칼빈주의 설교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하시는 건가요?” “설교하러 왔습니다.” “뭐하러 설교하러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어차피 바뀌는 것이 전혀 없을 텐데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하러 올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이미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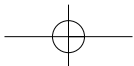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정해졌고 주권에 의해서 그 예정이 실현된다면 무엇을 설교하든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에 간수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 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 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칼빈의 생각일 뿐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이미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 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행 16:33-34)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 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



라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눅 23:42). 이디오피아 내시도 비록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빌립이 오기 전에 성경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집에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바울에게 와서 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먼저 주님께 요청했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백부장을 도와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사로의 무덤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한 후에 오셨나요? 보시는 것처럼 칼빈이 가르친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진 채 자신은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엉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운명론은 정말 끔찍한 교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자신은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은 적도 없으며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생의 단 한 순간도 회개를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가 교회에 다니고 자신의 목사나 신부가 유아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선택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선택받은 사람이고 따라서 ‘나는 적어도 하늘나라는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무슬림도 아니고 힌두교도도 아닙니다. 성경을 믿고 가르친다는 사람이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니까 엉터리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저를 매우 화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지 않으세요? 이런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화가 나지



않으면 무엇에 화가 나세요? 이런 엉터리 교리가 횡행하는 것에 화가 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에 화가 나세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교회에서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할 만한 일 아닌가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순서를 잘 보세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먼저 믿어야만 합니다. 만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택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믿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침례교회의 회중은 자신들이 점점 칼빈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부르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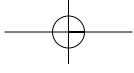


행위인데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기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였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성경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의 잘못된 교리를 성경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하니 그 목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른 목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단에서 그런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6:27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잘 보세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할지 아세요? 저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구했을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계속 읽고 공부했을 겁니다. 단지 제가 예정된 자이기를 희망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지 아세요? 단지 교실에 앉아만 있어서는 성경을 온전히 배울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증거할 때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기 전에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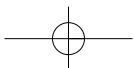
몰랐고 어떻게 논박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만일 칼빈주의자들이 옳다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옳다면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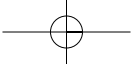
만일 칼빈주의가 옳다면 복음을 증거하느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은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옳고 저는 선택된 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저는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겠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칼빈주의가 옳다면 믿어 봐야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존하는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면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주님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을 해야 한다. 무슨 일인지 아느냐? 바로 믿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믿는 것도 일입니다. 바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칼빈은 인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온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이미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주장은 여러분이 선택된 자라면 아직 믿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고 거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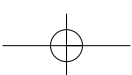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정되고 선택된 자라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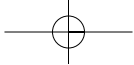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이사야 55장을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세 번에 걸쳐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칼빈은 사람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마르면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원하면 와서 얻으라고 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농담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놓고 장난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사 55:7)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어 있던 죄인을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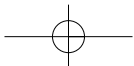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의 길을 버리고 주님께 오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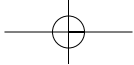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저는 선교에 헌신하고 자녀들을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양육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만일 칼빈주의가 옳다면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만일 칼빈주의가 옳다면 왜 자식들을 복음 전도자로 키워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겁니까? 만일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이미 정해졌다면 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듣기 전에 먼저 구원받게 아닙니다. 선포자가 없는데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복음 증거자가 없이 구원받게 된 것도 아닙니다. 복음도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삼위일체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과 여러분의 상상력과,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특정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아멘”입니다. 계시록 22:21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20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분명하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의 화답을 보면 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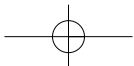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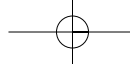
이제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세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 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는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두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이지요.

이제 성령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이것은 이사야 55장을 인용하신 것이지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은 “내가 강제로 구원할 수는 없는 일이니 원하는 자는 와서 준비된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오겠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라. 구원받기를 원하는냐?”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마지막 호소는 원하는 자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와 주님께서 해 주신 일을 믿고 구원을 값없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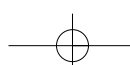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교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려고 합니다. 사회자가 성령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성령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말이 있노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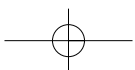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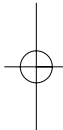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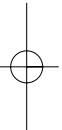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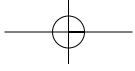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된 자가 아니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오라”는 성령님의 초청은 얼마나 끔찍한 농담이겠습니까? 이걸 완전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이잖아요. 예정되지도 않고 선택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완전 놀리는 것 아닌가요? 감옥에서, 병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성령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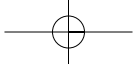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타락하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만이 아닌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종교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자신을 정죄하고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중



교를 찾고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람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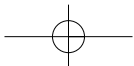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제2장 무조건적인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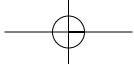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Total Depravity • Unconditional Election • Limited Atonement • Irresistible Grace • Perseverance of the Saints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칼빈의 거짓 교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칼빈주의를 배격한다고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둘 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둘 다 거짓 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칼빈은 제롬의 사상을 연구한 로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제롬은 5세기 경의 인물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 이미 예정되었다는 내용의 이교도 철학을 기독교화한 사람입니다. 제롬에 의하면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지옥에 갈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제롬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사람이 구원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제롬의 이러한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칼빈주의자들도 자신들을 제롬주의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제롬주의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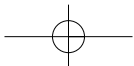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입니다. 그런데 제롬주의는 제롬주의가 아니라 운명론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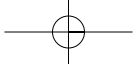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칼빈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예정된 것이라면 강간범이 불쌍한 여자를 강간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강간범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학대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으로 사람이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됩니다. 아기를 내다 버리는 여자가 있더라도 그 잘못은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예정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됩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 미리 정해진 대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결과를 바꾸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칼빈의 생각처럼 모든 죄의 원인과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칼빈주의 사상은 “톨립(TULIP)”이라는 약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교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칼빈주의의 둘째 강령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영원 전에 지옥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믿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에드윈 팔머의 책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칼빈주의 교과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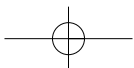
집필했고 NIV의 번역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미리 정하심이란 전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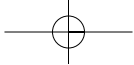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과 자신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칼빈주의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직한 칼빈주의자라면 칼빈주의의 양면을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팔머의 글을 계속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창세기 19장에는 동성연애자들이 나옵니다.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동성연애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거짓 신인 몰렉을 섬기며 자기들의 아이들을 제단에서 불살라 버렸던 자들의 행위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팔머의 글을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단지 길 옆에 비켜 서 시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놀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미리 정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나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나 타자수가 오타를 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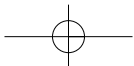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이나 심지어 죄까지도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따른 것이다.” 저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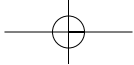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팔머의 예정에 대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예정이란 미리 정하심의 일 부분이다. 미리 정하심이란 모든 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다. 예정은 미리 정하심의 일부분으로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게 되는 인간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 예정은 선택과 버림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정은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버림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선택(election)이란 일반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란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도록 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정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비뚤어진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까! 빙빙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가도록 정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정하셨다는 말일 뿐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칼빈주의자들의 교리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리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우연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몇몇 구절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존 칼빈을 믿으시나요? 성경에 의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둘째 문제는 예정(predestination)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²⁾ 물론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2) 성경에서는 predestinate라는 동사형으로는 로마서 8:29,30, 에베소서 1:5,11 이렇게 4번 나옵니다. 그러나 명사형인 predestination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온 예정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과 관련있는 것이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정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역주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정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6입니다. “나무에나 땅 위에 있는 새의 둥지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길에서 네 앞에서 보거든 너는 그 어미 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고 (If a bird’s nest chance to be before thee in the way in any tree, or on the ground, whether they be young ones, or eggs, and the dam sitting upon the young, or upon the eggs, thou shalt not take the dam with the young:)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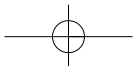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칼빈주의자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나 타자를 치는 사람의 실수나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납치하거나 죽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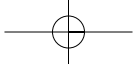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사무엘상 6:9을 보세요. “볼지니 만일 그 궤가 자기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가서 벵세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며 그 일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리라, 하니라. (...it was a chance that happened to us.)”

사무엘하 1:6도 보세요. “그에게 고한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As I happened by chance upon mount Gilboa...), 보소서,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하였고, 보소서, 병거와 기병들은 그를 맹렬히 따르더이다.” 구약성경에서 한 구절을 더 찾아보고 신약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9:11을 보세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체로운 자들

3)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서 “우연히”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바른 번역이 되려면 “길에서 네 앞에서 보거든”을 “길에서 우연히 네 앞에서 보거든”이라고 해야 합니다.-역주





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은총이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니라. (...but time and chance happened to them all.)⁴⁾ 인생을 살다보면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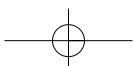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칼빈주의자들이 뭐라고 하건 우연한 일은 일어납니다.

이제 신약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30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강도들을 만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게 하고 떠나가게 하셨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칼빈주의자라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강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출 20:15)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만 내가 너를 도둑질하게 만들었노라.”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사람이 그것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자기 모순에 빠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겠지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니까요.

저는 어떤 칼빈주의자와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우리말 번역에서는 chance를 기회로 번역하였습니다. 기회라고 번역하기보다 우연이라고 번역했다라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되었을 것입니다.-역주



다. “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저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31절도 보시겠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And by chance there came down a certain priest that way...)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31-32절)⁵⁾ 31절에서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내려왔다는 표현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강도를 당한 것이나 상처를 입은 것이나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연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 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14-15절)

성령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섬길 하나님을 여러

5) 여기서도 우리말 번역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습니다. 바른 번역이 되려면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를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로 내려오다가”가 되어야 합니다.-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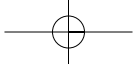
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선택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뜻에 따라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뜻과 의지와 결정에 따라 자기와 자기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나 이집트인들의 신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길지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칼빈주의자라면 이러한 구절들과 개념들과 진실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아니면 여호수아는 실언을 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14-15은 여호수아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실언을 하신 것입니까? 솔로몬이 헛소리를 한 것입니까?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예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지 말고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구원받게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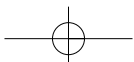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정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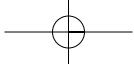
성경에 나온 예정이란,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서 앉아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미래의 전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정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주님처럼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곳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가 모두 주님처럼 변화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모여 있다면 저는 우리 모임을 떠날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예정이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처럼 변화할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맥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만일 예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졌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은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에 관한 예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하는 것에 관한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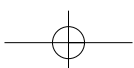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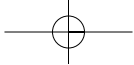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 인간의 구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왜 많은 교회에서 칼빈주의를 붙들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아무 교회나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설교하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방문한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다니세요.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에베소서 1장도 보세요.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며” 제가 읽지 않은 단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정이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 부분도 보겠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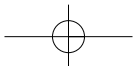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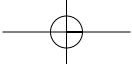
찬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5-12절) 이 본문에는 예정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했습니다. 두 번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12절의 끝부분을 다시 한 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본문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믿기 전에 예정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정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신뢰가 먼저고 그 다음이 예정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만 문맥에서 떼어내어 그 단어만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정(predestination)”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명사형인 “예정(predestination)”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처럼 변화할 것이 예정되어(predestinated)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정에 대해서 성경을 인용할 때 거의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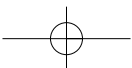
경우에 잘못 인용하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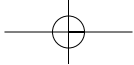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오늘 우리의 얘기 주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시는지, 주님께서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반드시 넘어지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것이라고 아는 것은 아이가 탄 자전거를 바로 넘어뜨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이를 넘어뜨리지 않아도 경험을 통해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는 누구나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셨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명하시기에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해서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아시는 것이지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칼빈주의를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칼빈주의를 믿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말라고 충고합니다. 칼빈주의를 믿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과 실행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구원받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믿기로 예정된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그가 믿지 않기로 예정된 것이라면 더욱 복음을 전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탠리라는 친구는 칼빈주의자인데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다닙니다. 자신이 믿는 것과 반대되는 일에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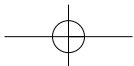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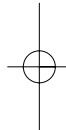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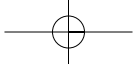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것이지요. 물론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그 친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그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칼빈주의자들 중에는 자신이 믿는 교리와 반대로 실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논쟁을 했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던 어떤 칼빈주의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증거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다가 넘어져서 어깨를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넘어졌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1-2절)

만일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이 받은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리고 충만한 때가 차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창세 전에 선택받은 자들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갈보리 이전에는 흘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씻어 주실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피가 흘러지기 전에는 여러분의 죄를 씻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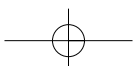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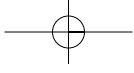


주실 수 없었겠지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을 씻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밤 우리가 선택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으며 창세 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나 하면,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창세 전에 있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셈이 됩니다.

다시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을 읽기 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이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성경에 의하면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맞습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 3:10)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까(요일 1:8)?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요 3:7)?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말대로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선택받은 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8:33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만일 제가 창세 전에 선택된 자라면 저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필요도 없어요. 저에게는 구원자도 필요없어요. 저는 거듭날 필요도 없고 피흘림도 필요없어요. 만일 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어느 무엇으로도 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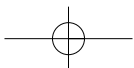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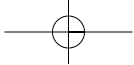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그런데 만일 선택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분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주님은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정죄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는 흠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요 8: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눅 23:4)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함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가 아니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시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바로 흠 없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와 누가 지옥에 갈지 미리 결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미리 아시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도 기독교 미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짐승들이 한 쌍씩 들어갔지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그 짐승은 멸종한 것인가요? 아니지요. 성경에서는 제사에 사용할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이 방주에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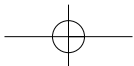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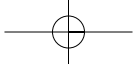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이었고 그렇지 않은 짐승은 두 쌍 씩 방주에 탔었지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미신이 있습니다. 방주에는 암수 한 마리씩 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보면 전혀 엉뚱한 게 사실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놀라운 일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느니라.”는 구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히스기야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신 적 없으세요? “성결 다음은 청결이니라.”는 말씀은 어떻게요? 아주 놀라운 성경 말씀이 아닌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34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양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염소로 드러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41절을 보세요.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방금 읽은 대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에 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몇 구절 인용해 보겠습니다. 칼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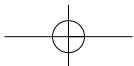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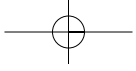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후 2:4)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 때 어떤 사람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의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니까?” 이사가 5장을 보세요. 칼빈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거나 매우 능력이 적은 창조자일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가 구원받을지 창세 전에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도 창세 전에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정확한 수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칼빈의 하나님이 산수를 제대로 공부한 하나님이라면 구원받을 사람의 수와 지옥에 갈 사람의 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만드셨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2주일에 한번씩 이런 종류의 편지가 저에게 옵니다. 제가 간극 이론을 믿고 있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언제 타락했나요? 마귀가 타락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만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타락했다면 아담을 유혹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만일 마귀가 아담 이전에 타락했다면 그게 언제였나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아니라면 마귀는 언제 타락했지요? 언젠가는 마귀가 타락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도록 하셨나요? 칼빈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하셨나요? 칼빈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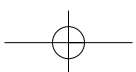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내셔서 아담을 유혹하고 타락하도록 하셨나요? 칼빈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칼빈주의자라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지도 아셨고 또 그들 중 일부는, 아니, 아마도 상당수는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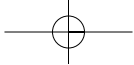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이사야 5:14을 보세요.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하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지옥에 갈 사람들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들이 누구인지, 또 몇 명인지 미리 아셨다면 왜 지옥을 충분히 크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지옥에 갈 사람의 수를 미리 아셨다면 지옥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실 필요가 무엇입니까? 왜 화산이 분출해서 땅 아래에 흔들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예기의 주제가 지옥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갈 사람의 수를 미리 정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옥을 확장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다음 구절은 출애굽기 32장과 계시록 3장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질문이 좀 교묘하니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히 10:17)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시나요?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은 아닌 것이네요. 그렇지요? 사실 이건 교묘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학적인 추측으로 신학적인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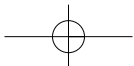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장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추측으로 가정을 하고 나서 결론으로 교리를 세우면 비성경적인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추측을 하고는 그 추측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지옥에 갈지와 누가 하늘나라에 갈지도 미리 아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기로 선택하신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쉽게 맞힐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요? 이제 문제 나갑니다. 다음을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마 7:23) 시편 139:13에서는 주님께서 사람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에 보내시는 순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바로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이름은 아시면서 지옥에 있는 부자의 이름은 대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부자의 이름을 대지 않으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옥에 간 부자를 알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하 세계를 보실 때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지옥에 있



는 어떤 사람을 보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주님께 질문드렸을 겁니다. “주님 저 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도 모르겠노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러자 누가는 재차 물었을 겁니다. “주님, 저는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제 복음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것이 비유라고 하지 못할 테니까요.” “누가야,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런 것을 가르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어 보지 못한 것은 성경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한 모세의 간구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32-33절)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에 갈 것이라서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 버릴 것을 미리 알았다면 왜 처음에는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이름만을 기록해 놓지 않은 것입니까? 왜 기록한 것을 지우는 것입니까?

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구절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처음에는 생명책에 있다가 나중에는 지워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적인 결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결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강해하지도 못하는 로마서 9장의 민족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택에 끼워 맞춰 버린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제네바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영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난 500년간 칼빈주의자들이 항변한 유일한 무기는 파라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오직 파라오만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누가도 있는데 왜 하필 인용하는 것이 파라오에 대한 것뿐입니까? 그 많은 구약성경의 인물들과 선지자들은 왜 인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칼빈주의자들의 다음 증인은 누구인가요? 빌라도인가요? 이세벨인가요?

로마서 9:17을 보세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이 구절 어디에도 하늘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파라오야, 내가 나의 권능을 보이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노라. 너로 인해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능력있는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비슷한 경우를 한번 들어 보세요. 몇 백년 후에 한 사람 등장함



니다. 그는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파라오처럼 큰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처럼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자 고레스가 뭐라고 주님께 답했는지 아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답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은 온 땅에 두루 밝혀졌습니다. 고레스는 파라오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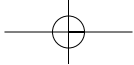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파라오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파라오도 어떠한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첫째 아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병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이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파라오의 아들을 죽이거나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과 권능을 온 땅에 두루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레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1-3절)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혼인 잔치는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오십시오. 당신은 초대받았습니다.”

“오세요. 왕께서 당신을 초청하셨습니다.”





“왕께서 잔치에서 당신을 보고자 하십니다.”

“왕께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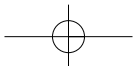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그러자 사람들은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 습니다. 왕이 그들을 직접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으나 오지 않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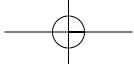
4절입니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 되, 보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 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 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4-6절) 왕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종들을 모욕 하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예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오기로 예정된 사람들 이 초대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만일 이 모든 것이 왕이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라 면 왜 그대로 행한 사람들의 행위에 화를 내는 것입니까? 왜 처음부터 오지도 못할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까? 만일 손님들이 처음부터 오지 않을 것을 알 면서도 그들을 초청했다면 이것은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라고 말씀하셨습니 다. 또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계 22:1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농담이었나요? 오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 셸다면 그것은 결국 속인 것이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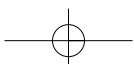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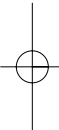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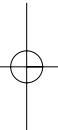
8절을 보세요.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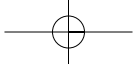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 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인가요? 왕이 있고 왕이 베푸 잔치가 있고 또 초청이 있습니다. 왕의 개인적인 초청인데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오지 않았고 왕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선택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죄의 책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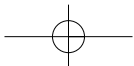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제3장 제한된 속죄

Total Depravity • Unconditional Election • Limited Atonement • Irresistible Grace • Perseverance of the Saints

우리는 칼빈주의라는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제롬주의입니다. 또한 제롬주의는 제롬주의가 아니라 운명주의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미리 정해졌다는 사상입니다. 칼빈주의에 따르면 사람은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설계해 놓으시고 입력하신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행해진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은 “비열한” 하나님임에 틀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과 타락과 사악함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요일 1:5)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히 7:26)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은 “TULIP”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전적 타락”의 교리는 비성경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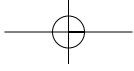


건적인 선택”의 교리 또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칼빈주의의 셋째 강령은 “제한된 속죄”입니다. “속죄”의 성경적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값으로 치르신 대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고 가르칩니다. 버림받기로 정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그저 예정된 대로 지옥에 들어가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교리입니다.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피를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아무런 저항이나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지옥에 들어가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에드윈 팔머가 칼빈주의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쓴 책을 다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머는 이 책에서 칼빈주의를 설명하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의도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죄값을 지불하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지옥에 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 주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신 자들은 누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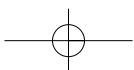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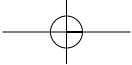


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과 의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가? 오랫동안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질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답변해 왔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답했고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알미니안주의자나, 칼빈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계속 팔머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 심지어 가롯 유다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고 말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가롯 유다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은 가롯 유다 만큼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약 2:10)? 성경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갈 3:22)?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칼빈주의자들은 유다를 지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자기들의 아내를 지목하지는 않을까요? 왜 팔머씨는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나의 아내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라고 반문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왜 하필 유다를 지목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유다라고? 유다는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사악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을 거야.” 유다가 그렇게 사악한 사람인가요? 우리 중에 사악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칼빈주의의 뒤에는 자아중심적인 생각,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





만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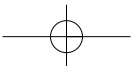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자신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칼빈주의자는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은 언약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믿는 칼빈주의자는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기라고 믿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기는 했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계속 팔머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은(알미니안주의자들)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자들의 죄값까지도 갚아 주셨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속죄란 보편적인(우주적인) 봉투나 마찬가지로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투가 마련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만 봉투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피를 흘리신 것만 아니라 흘려버리신 것이 된다.”

미국의 칼빈주의자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우리의 죄보다 큰 은혜(Grace greater than our sin)”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과는 다르게 주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면 그것은 헛되이 흘린 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다른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들은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강단에서 하는 말에는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머의 말을 좀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의도하셨지만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을 구원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는 낭비된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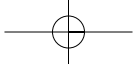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이 “제한된 속죄”를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구절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 오르실 때 아담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대로, 구원하기로 생각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만일 선택된 자들이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선택된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지요? 1절에서 말한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들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 2:1-2)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믿는 사람들인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한 것입니까? 물론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함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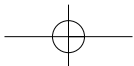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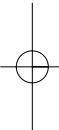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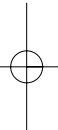


습니다.

요한복음 3:16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팔머의 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부르짖을 것이다. 이것에 우리는 이렇게 답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이들을 보내서 선택된 자들이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이 본문(요 3:16)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을 것을 선택합니다. 만일 자신들이 믿는 것이 성경에 없으면 몰몬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바꿔서 자신이 믿는 것에 맞추면 그만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읽는 방식으로 요한일서 2:2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선택된 자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칼빈주의자들은 본문의 의미가 이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장 15절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선택된 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선택된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의 선택된 자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선택된 자들에게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선택된 자들에서 나느니라. 세상의 선택된 자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가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세상은 선택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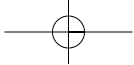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맞으니까요. 그러나 2절의 “온 세상”은 말 그대로 “온 세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맞으니까요.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들, 믿는 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보편적인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14절부터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노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5:14-15)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대속은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15)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교리가 맞다면 성령님께서서는 창세 전에 예정되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저 들어가시면 될 뿐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낭비해 가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39절 부터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들을 머무르시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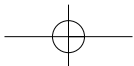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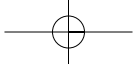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네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요 4:39-42)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선택된 자들”인가요?

누가복음 19장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잃어버려진 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서는 잃어버려진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잃어버려진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택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도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왕들이 다 구원받은 선택된 사람들인가요? 모든 왕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권위를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경찰관들과 교도관들이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선택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1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은 선택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2장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





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코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이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4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선택된 사람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죽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속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을 인용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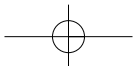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가서 방에 있는 모든 만화책을 가져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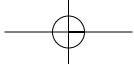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그러자 아이는 모든 만화책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모든 만화책을 가져왔어요.”

“아니 얘야 파란색 책만 가져오지 그랬니.”

“어머니께서 모든 만화책을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모든’ 은 파란색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은 파란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서 모든 양말을 가져오너라.”

“어느 것을 가져 갈까요?”

“모든 것을 가져오너라.”

“어머니 모든 양말을 가져왔어요.”

“아니 애야, 흰 양말만 가져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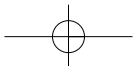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어머니께서 모든 양말이라고 하셨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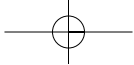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그랬지, 하지만 ‘모든’ 은 흰색을 의미한다.”

아무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미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데도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이란 자신들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 “언약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침례교인이면서 칼빈주의자인 경우입니다. 칼빈주의자면서 개신교인일 수는 있지만 침례교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믿는 자들이 신앙의 간증과 순종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면서 물뿌림(세례)을 통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믿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위해서 죽으실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마 26:50).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유다가 선택된 자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날이 밝으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의 열둘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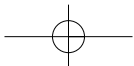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6:13) 유다는 주님의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칼빈주의자들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성경은 그걸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이들은 선한 사람들일까요, 악한 사람들일까요?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이 거짓 교사들은 선한 사람들일까요, 악한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악한 사람들이겠지요. “그들은 정죄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이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저주받을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지 보이시나요?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저주 받을 이단 교리들이 있고 이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단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망치면서 정죄를 받을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죄도 대속하셨고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사셨는데도 이들의 끝은 정죄입니다. 이것은 “제한된 속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말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 죽으셨고, 본디오 빌라도를 위해 죽으셨고, 헤롯을 위해 죽으셨고, 히틀러를 위해 죽으셨고, 저를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보다 나은 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도 필요



없는 선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순위도 정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죄를 400개나 지었지만 나는 두 개밖에 짓지 않았지.”라고 할 수 없어요. 두 개 밖에 짓지 않았다해도 그것을 알고 지은 이상 죄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자신은 선택 받은 자이며 따라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믿을 것을 정해 놓고 성경으로 그것을 입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믿는 것에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고 가르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도록 입력해 놓으신 것이니까요.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제한된 속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보편적인 속죄”를 말하는 것인까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몇 명이나 죄를 지었나요? 모든 사람이지요. 죄의 결과로 몇 명이나 죽게 되었나요? 역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칼빈주의자들에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나요? 그들은 “예”라고 답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나요? 역시 “예”로 답할 겁



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나요? “예”로 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기회를 가지고 있나요? 칼빈주의자들은 이 질문에 “아니요”로 답할 겁니다. 왜 아닌가요? 문맥에서 “모든 사람”은 계속 같은 대상을 의미하지 않나요? 어쩌서 처음 세 번의 “모든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맨 뒤의 “모든 사람”은 “선택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 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며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결정”으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주님의 대속을 거부하고 구원자를 거부하고 칭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속과 구원자와 칭의 없이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속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논쟁을 전환합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논쟁에서 자신들의 근거를 성경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거기서도 성경으로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한 가지 주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성경으로 입증하는 게 마땅치 않으면 갑자기 천년왕국에 대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한 가지 주제에 머물러 논쟁을 끝내지 못합니다. 칼빈주의자들



도 논쟁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독립 침례교회의 회원들도 비슷한 짓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상대를 완전히 논박하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이름을 들먹이며 욕을 합니다. 이견 유치원에서도 통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기독교계에서는 통하나 봅니다.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름을 부르고 욕을 하는 것은 논쟁에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갈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문에 의하면 몇 명이나 길을 잘못 들었습니까? 모든 사람이지요. 주님께서는 몇 사람의 불법을 담당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제한된 속죄”가 아닌 “보편적인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칼빈주의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마 18:11)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는 소유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리기 전에는 원래 주님의 소유였던 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유일 뿐입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칼빈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왜곡합니다.



양들이 길을 잃고 자기 길로 간 것을 주님이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원래부터 자신의 소유였던 것을 찾으러 오셨고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사야 53장에서도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다 양으로서 길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주님의 소유였던 양이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 “같이”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종종 길을 잃기 때문에 양들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양 같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갈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익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값을 우리에게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버지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나는 내가 구원할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8:29).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아버지께 바친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



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수 백만이 구원을 받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피는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최상의 동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상급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낭비되거나 헛되이 흘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과 자기를 드리심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10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라 그에게 고통을 두셨은즉”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의 표현을 보세요.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을 누구에게 드린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아버지께 드린 겁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10을 보세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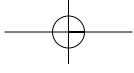
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주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지요.”라고 말합니다. 예, 주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자도 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신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저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의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할 때, 바로 그 순간 구원자는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 옆에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구원자로서 달려가기 위해 구원자로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전에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의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이지요. 여러분이 밖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구원자도 되십니다. 그들이 요청만 한다면 언제든지 구원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몇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디도서 2:11을 보세요.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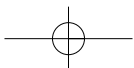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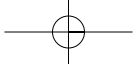
모세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과거 예수님의 초림 전까지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분 있나요? 아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침례교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죽어서 하늘나라에 자동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모두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교리를 들어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을지 몰라도 요한복음 8장에는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요 8:39)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임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은 당연히 하늘나라에 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단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갈 4:4-5) 주님께서 누가 입양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지요. 이들이 모두 믿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10을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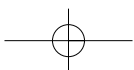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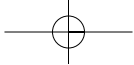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28절부터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 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히 10:28-29)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령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정죄를 받을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이러한 자들을 거룩히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서는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리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것을 피할 길도 주지 않고 그저 고통의 장소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리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분이신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내어 주시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은혜구나. 이게 바로 자비로구나.”하고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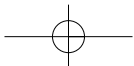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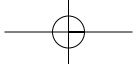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도록 만드셨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건 무엇을 믿건 상관없이 창세 전에 그렇게 예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계시록 4장과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11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이제 에스겔 33:11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신의 악함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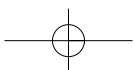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세 번째인 “제한된 속죄”라는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주 다른 것이고 잘못된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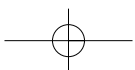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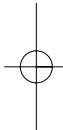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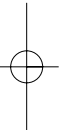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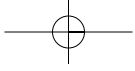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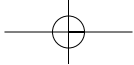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리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신은 칼빈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저 칼빈주의가 맞겠거니 옳은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라고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사상에 불과하며 성경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교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을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성경이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내고 다듬고 지도해서 주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한된 속죄”에 대한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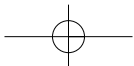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제4장 저항할 수 없는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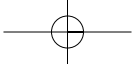
Total Depravity • Unconditional Election • Limited Atonement • Irresistible Grace • Perseverance of the Saints

우리는 칼빈주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TULIP”의 “I”에 해당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라는 칼빈이 주장한 교리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으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상을 반대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칼빈주의자들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겠지요.

우리는 그동안 에드윈 팔머의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책을 인용했습니다. 66면에⁶⁾ 보면 팔머는 다음의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성적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성령님께 달려 있으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을 필요가 없다.’든지 혹은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하지 말자.” 팔머는 구원

6) 이것은 원서의 면입니다. 원서의 제목은 “The Five Points of Calvinism”입니다.-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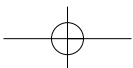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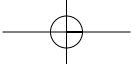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팔머가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의 입장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진실을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가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기다리자’ 라고 논의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60쪽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믿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계속 팔머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기다리지 말고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은 당신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을 필요조차 없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진짜 이렇게 믿는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 봐야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은혜로 구원하실지 창세 전에 선택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면 당신은 결코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 당신은 반드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리를 인간이 수 세기에 걸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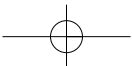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해 왔다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비교해 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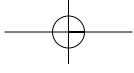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스테반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보세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스테반이 지적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비춰보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님의 뜻에 저항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시대에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혹은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설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령님의 뜻에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거역합니다. 34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의 더러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의 더러운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까지 하시며 보여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34-37)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너희를 모으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이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여 오지 않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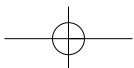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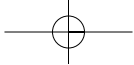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다. 너희는 내 뜻에 반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한 것입니다. 37절을 다시 보세요. “암람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려는 안전과 보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38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모아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여러분과 논쟁할 때 인용하기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믿을 것도 미리 정해져 있으니 따라서 어떻게 되든 구원받게 되고 반대로 버림받게 되어 있으면 무엇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논쟁도 필요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강력한 논증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논증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6:44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 구절은 아마 칼빈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일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 구절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와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선택된 사람들이다.” 정말 이 구절이 의미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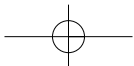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것이 칼빈주의자들의 생각과 같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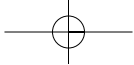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요한복음 12:32을 보세요.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주님께서 땅에서 들리셨나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 끌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몇 명의 사람이나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든 사람” 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6:44의 논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군가는 그 부르심에 저항해서 오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서는 잔치를 마련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탁자마다 풍성한 음식이 마련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자리가 지정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손님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입하여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초청하셨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 전에는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가서 1:4을 보세요.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바른 자들이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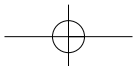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신을 사랑하나이다.” 아버지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면 왜 아가서에서처럼 이 끌어 달라고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끄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끌어 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끌어 주실 때까지 이끌어 달라고 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분명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백화점에 갑니다. 백화점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백화점에는 갈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1에서 “또한 그분께서 법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 다음 절에서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억지로 따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이끌어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실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2:25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기회조차 없다면 왜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본문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24절에 의하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마 11:28)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취하라”(예 22:17)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와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구원자를 거절했던 것처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해서 거절할 수 없다면 이러한 구절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해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이것은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6절부터 보세요.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놀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제 얌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딤후 3:6-8) 요한복음 14:6에 의하면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한 단어를 보세요. 바로 “resist”⁷⁾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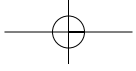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resist)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왜 하필 “저항할 수 없는(irresistible) 은혜”라고 부르는 걸까요? “거절할 수 없는”이나 “대체할 수 없는”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하필 진리에 저항(resist)하고 있다는 말씀이 명백하게 존재하는데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irresistible) 은혜”라고 부르는 것 일까요? 참으로 궁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이 이러한 것을 모른다고 어떻게 아십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산 지 얼마나 되셨나요?”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다섯 구절 이상 인용하는 것을 들어 주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칼빈주의자와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6장의 구절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다시 그와 만나서 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입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25년 전에는 서로 다른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성경을 펴 가며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누구도 성경을 가지고 그런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흥미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흥미 없는 주제라면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맥도날드에서 저녁 6

7) “resist”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칼빈주의자들은 보통 이 단어를 “저항”이라고 부릅니다.-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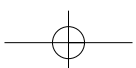
시부터 10시까지 성경을 펴고 읽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나라가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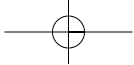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예전에 우리가 뉴서머나 지역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교파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30~40분 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밝혔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 봤으며 성경을 가지고 한 시간 가까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일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을 만큼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63:10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만일 아무도 성령님께 저항하지 않았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괴로워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성령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성령님께서 괴로우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행한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성령님께서 인격을⁸⁾ 가지고 계시므로 괴로워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6:3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 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뜻을 완전히 굽히고 들어오는 상대방과 다툴 수는 없습

8) 인격은 영어로 "personality"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과 의지가 있고 감정을 느끼는 독립된 객체라는 것입니다.-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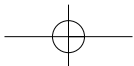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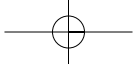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니다. 여러분의 뜻에 거역해서 자신의 뜻을 세우는 사람과 다투게 되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는 “옳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은 “싫은데요.”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라.”
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도 우리 계획이 있는데요.”라고 말합니다. 사람
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왔을 겁니다. 아마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분명하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지요. 이러한 사실들은 성
경에 비춰보면 매우 명백합니다.

잠언 1장을 보세요. 22절부터 보세요.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
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
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내가 불렀
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
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잠
1:22-25) 이 말씀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가 양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귀를 막
고 듣기 싫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항할 수 있는 은혜에 대
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에서 한 구절 찾아보고 웨슬리에 대해서 이
야기 하며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웨슬리가 알미니안주의자라는 편
견을 가지고 그의 글을 대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의 글과 설교를 읽어보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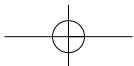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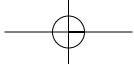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습니다. 사람들은 웨슬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웨슬리의 글들을 읽어보면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는지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웨슬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칼빈주의의 다섯째 강령과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0:21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아침 8시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전 11시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오에도 “오라”고 하십니다. 오후 5시에도 “오라”고 하십니다. 저녁 9시에도 “오라”고 하십니다. 밤 11시 반에도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팔을 활짝 벌리셨고 손을 땅끝까지 뻗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파 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수백만 킬로미터를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의 등 위에서 책을 읽었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형제인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 중에 “Oh Horrible Decree”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15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 끔찍한 교리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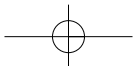
(찰스 웨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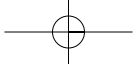
아! 친절하고 은혜로운 비둘기여,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거절함이
 저에게는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공짜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게 아니야.
 주께서 버리기로 하신 사람들에게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부르심일 뿐이야.”

그들은 주께서 신실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여 말합니다.
 “주께서는 죄인의 근처에만 오셨을 뿐,
 죄인들의 죄악과 그들이 받은 저주를 옮겨 주시려 하며
 하늘나라를 보이시고 ‘들어가라’ 하시지만
 여지없이 그들을 지옥으로 던지시네.”

오 끔찍한 교리어!
 그것이 어디서 왔건 간에
 그들의 지옥 같은 모독을 용서하소서.

9) 이것은 찰스 웨슬리의 시 “Oh Horrible Decree”를 의역한 것입니다. 그대로 번역하기에는 고어체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요약하여 의역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그대로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이 시의 좀더 나은 번역을 알고 계신 분은 역자에게 연락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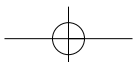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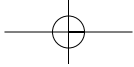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늘에 있는 자신의 왕좌를 떠나
인간의 친구요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신
어린 양께 누가 책임을 돌릴 수 있으랴!

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을 저도 공유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죄를 대속하신 벌레가 되신 것을,
주님의 피를 짓밟는 그들을 보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그들은 감히 주님을 제한하려 하고,
주님의 얼굴을 모독하여,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부인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두 자신들만 취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주님의 의를 빼앗아
효과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죄인들은 복음 듣기를 싫어하여 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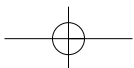


주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제공하시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

죄인들은 주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조롱하며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의로운신 하나님께서는
태로부터 저주받은 그들을 위해,
타락해 버린 그들을 위해,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
대부분을 그냥 지나치시고,
그들 중 몇 명의 불쌍한 사람들을 죽이시어
지옥으로 가도록 강요하셨네.
주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시어
결코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네.”
죄인들의 죽음의 책임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돌리는
악마의 꾀변이여!

그들은 소리치르고 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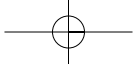


만군의 주께 간청하며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수백만의 죽은 혼을
희생 제물로 드리며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주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주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오 하나님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사탄이 분노하게 하십니까!
주께서 잘못 행한 자에게 복수하지 않으십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으시렵니까?
확실히 주님께서 그를 우리의 발밑에 두시리니
마귀와 그의 교리가
불타는 구덩이로 던져지리이다.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며, 일어나소서.
죽임 당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주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유지하시고
피의 희생 제물을 굳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는 값없는 것이니,
주의 십자가를 높이 드시어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끄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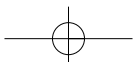




오 주님의 은혜의 정당함이며,
우리가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팔에 안겨 있음을
모든 혼들이 입증합니다.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어
주의 설교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두 함께 동일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어
주를 위해 죽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주께 바칩니다.
내 심장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주께 바칩니다.
이것들을 모두 바쳐서
죄악을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선하심을 입증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를 주의 능력의 팔로 안으사,
주여, 저로 고난을 당하도록 부르시어
고통의 시간을 맡게 하소서.
죽음에서도 제가 선포할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라.
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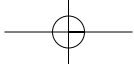


찰스 웨슬리는 이 시에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시를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감리교회나 웨슬리안 교회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거친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칼빈주의는 사람이 만든 신학체계일 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 칼빈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칼빈주의를 반대한다고 해서 알미니안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믿으면 되니까요. 칼빈주의에 대해서 논쟁하다 보면 교부들(church fathers)을 언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29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온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행 20:29-30) 갈라디아서 3:1도 보세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꺾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여러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건전한 교리에서 돌아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였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의 상황이라면 왜 교부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초기 기독교 시대의 저작들을 성경보다 더 신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에 성경에서는 교회가 건전한 교리와 순수한 진리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글에는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쓴 글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쓴 글이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성경이 맞고 이 사람이 틀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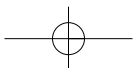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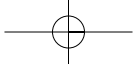


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증오가 가득 찼다면, 아니면 우리가 자아 중심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합니다. 제가 쓴 글이나 하는 말이라도 성경과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맞고 제임스 낙스는 틀리다.”고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교부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과 사람들의 글이 서로 다르다면 성경이 항상 옳고 사람들이 항상 틀립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칼빈주의 체계에 의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할 만큼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는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니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을 강제적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선택된 사람은 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는 칼빈주의 체계 내에서는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일지는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이단 교리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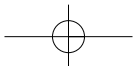
제5장 성도의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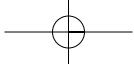
Total Depravity • Unconditional Election • Limited Atonement • Irresistible Grace •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그나마 “덜”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답으로서의 결과는 맞지만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결과적으로 답은 맞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을 도출하는 풀이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 2:8-9).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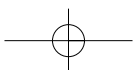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 처음에 구원을 행위로 받은 것이어야 논리적으로 맞게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 주셨습니다(요 19:30).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요 1:12).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요 10:29).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상급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다(고전 3:13-15). 그러나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행위는 필요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이루시고 있는 일이며 이루실 일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출생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요 1:12-13).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천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롬 8:38-39).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35-49). 그러면 우리 몸의 구속도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



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몸의 구원도,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몸이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선택을 거절해도 저항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답은 맞지만 풀이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잘못된 교리이기는 하나 앞의 다른 네 강령처럼 “심각하게” 잘못된 것은 아니기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도서출판 진리의 성경 사역 소개

“그러나 진리의 성경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단 10:21a) 천사가 다니엘에게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여 준 것처럼 **도서출판 진리의 성경**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역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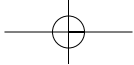
◆ E-Mail : kjv74@naver.com

♠ 진리의 성경 카페 :

<http://cafe.naver.com/kjv74>

전도용으로 여러권의 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카페나 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은이 James W. Knox

제임스 낙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
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
작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
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
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낙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
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
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knox.com>

♣ 옮긴이 이우진

- 펜사콜라성경신학원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 前 월간 강단의 거성 편집장
- 前 펜사콜라성경신학원 강사
- 現 도서출판 진리의 성경 편집장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강사

